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기획

두 얼굴의 대형마트

7 지자체가 나서라

규제법 만으로 편법개점 못 막는다

대기업 유통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돼 기존 대형마트의 지역기여도 높이기 등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법안 통과로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등을 자치단체가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시장 및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1일 중형규모(바닥면적 500㎡이상)의 '준대규모점포'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을 공포한다. 5개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어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신규 출점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국회법 통과와 지자체의 조례 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구 맥곡동 대형마트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치평·중앙·우산점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개점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북구 맥곡동 대형마트는 광주 북구청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 했지만 법원이

유통·상생법 통과로 출점 제한 권한 법안 허점 보완할 규제 조례안 시급 기존 입점업체는 지역기여도 높여야

건축 허가와 강제 집행을 결정, 이달 말 건축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김용재 집행위원장은 "규제법안만으로는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편법개점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유통법"의 경우 3년만 유효한 일몰법인데다 1500여 개 전통시장 중 300여 개 등록시장만 500m 내 입점 제한의 보호를 받을 있을 뿐이며 '상생법'은 완전가맹점의 경우 사업조정을 피할 수 있기때문에 이들 법

안들의 재계정을 위한 정책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가 과포화 상태인 광주의 경우 신규 출점을 막는 것과 더불어 기존 입점해 있는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기여와 영세상인과의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타지역의 경우 기존 영업중인 대형마트에 대한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1년 동안 부산지역에 진출한 대기업 유통업체에 대해 ▲인력고용 ▲지역상품 상설 매장 설치 등 8개 항목으로 나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대규모 지난 7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지역 기여도 점검을 했다.

이에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본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태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며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김경남 사무이사는 "규제법안이 통과됐더라도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며 "규제법안 아니라 지역상권과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기업인식개선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29일 오전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출범식을 한 뒤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존중받는 국민기업으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식개선추진위 출범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식개선 추진위원회'가 29일 출범했다.

중기인식개선 추진위는 '중소기업 존중받는 국민기업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청년층 인식 향상에 영향력이 큰

산·학·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강영태 부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성훈 광주·전남중기청 공공관로지

원과장, 김영기 전남대 교수, 최양호 조선대 교수, 정후식 광주일보 정경부장 등 13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올바른 중소기업관

산 ▲중소기업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이 단순히 인력채용 문제를 넘어 사회자본으로서 선진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의식개혁 문화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강영태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존중받는 국민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 주민과 청년층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우수인력들이 중소기업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NBA 2개팀 후원

LA 레이커스·마이애미 히트와 계약

금호타이어는 미국 프로농구(NBA)팀인 LA 레이커스 및 마이애미 히트와 후원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두 팀과 2개 시즌(2010~2012)에 걸쳐 후원하기로 한 이번 계약에 따라 대형전광판과 스코어보드를 통해 회사 로고를 노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브랜드 노출권을 행사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현지 팬들과 함께하는 행사와 현지 딜러를 위한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

미국 3대 스포츠의 하나인 NBA는 한 경기가 평균 2만 명 가까운 관중을 동원하고, 전 세계 200여 개국의 방송채널과 인터넷



으로 중계된다. 금호타이어가 후원하는 두 팀은 올 시즌의 강력한 우승 후보다.

금호타이어는 미국 5개 대학의 풋볼 스폰서십에 합입해 지난 3분기 북미 지역 최고성장타이어 매출이 16.6% 증가하는 등 후원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SK건설, 터키 화력발전소

1조1천억 규모 건설 수주

SK건설은 터키에서 6억9850만유로(1조1000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공사는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에서 남동쪽으로 350km 떨어진 투판벨리의 광산지대에 갈탄(Lignite)을 주원료로 하는 150메가와트(MW)급 화력발전소 3기를 신설하는 것이다. SK건설은 이 발전소의 석탄 공급설비, 유동층 연소 보일러, 스팀 터빈 등 설비를 설계에서부터 구매와 시공, 시운전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3월 시작해 2015년 2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건설 침체 지속...지방경기 상승세 둔화

한은 '지방경제 동향'

한국은행은 29일 지방 경기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 경기는 여전히 부진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방의 제조업 생산 증가율(작년 동기 대비)은 올해 1분기 27.6%에서 2분기 20.6%, 3분기 12.6%로 낮아졌다.

제조업체들의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분기 99에서 3분기 95, 10월 93으로 떨어졌다.

소비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대형 마트의 매출 증가율은 2분기 4.

0%에서 3분기 8.2%로 커졌다. 자동차업체의 새차 출시와 마케팅 강화로 승용차의 신규 등록 대수는 2분기 2.9% 감소에서 3분기 9.9%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액은 2분기 -9.3%에서 3분기 -19.2%로 감소 폭이 커지고 건축 허가 면적은 같은 기간 30.1% 증가에서 19.5%로 감소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는 나빠졌다. 다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분기 0.4%에서 3분기 0.1%로 낮아졌다가 10월에 0.3%로 높아졌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분기 1.5%에서 3분기 1.3%, 10월 0.8%로 둔화했으나 매매 가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합뉴스

올 수출 4660억달러...세계 7위

내년 무역 1조달러 진입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세계 7위에 올라서고, 내년 무역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제47회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두고 발표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10월 중 381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가 증가했으며, 연말까지는 작년동기비 28.2% 증가한 4660억달러에 달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출을 초과한 사상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무역협회는 이 같은 사상 최대 실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남유럽 재정위기, 환율문제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상대적으로 선전해 얻은 성과로, 이를 통해 '수출 세계 7위'에 올라섰다고 밝혔다. 작년 수출액은 세계 9위였다.

이러 내년도 우리의 무역환경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환율하락 기조 등에도 주력상품의 경쟁력 향상, 신시장의 성장세 지속 등에 힘입어 수출 5160억달러, 수입 4850억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초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중소 10월 평균 가동률 전월 대비 1.1%P 상승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제조사 140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0월 평균 가동률이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72.9%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 8월 71.3%를 기록한 이

후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앙회 관계자는 "10월에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호조를 보였고 자동차 내수판매가 활기를 띠면서 가동률 향상에 영향을 미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95.54 (-6.26)
코스닥지수	494.33 (+0.77)
금리 (국고채 3년)	3.22% (-0.08)
원·달러 환율	1,152.50원 (-7.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 꿈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할 짓!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록우산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실천과 관심만이
소중한 아이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0여 년 동안 학대피해 아동을 돌보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이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어린이와 함께 하는 꿈
초록우산

아동학대
신고전화
후원문의

1577-1391
(062)351-3513